

월/요/광/장

강은국



지난달 27일, 여수가 세계박람회기구(BIE)가 인정하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여수항 일대가 관광·레저 항만으로 거듭나면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도시로 부상할 겁니다.

중국 갑부와 '금강산도 식후경'

7천만 중국 갑부의 유치를 위해서 필자가 전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는 중국 사람들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을 즐겨 쓴다는 것이다.

한국의 갑부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유치해도 그 관광 수입은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한국 관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식생활이라는 말이다. 중국 상해의 한 관광객은 한국 관광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四菜一湯(네 가지 볶음요리와 한 가지 탕), 또는 '四盤兒兩碗兒(네 가지 볶음요리와 두 가지 탕)'를 평상시 식탁에 오르는 가장 간단한 요리로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탕에 밀반찬 몇 가지로 식사를 하라 하니 '출가지인'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만은 아닌 것 같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손진홍



결과는 과정 끝에 있는 '점(點)이요, 과정은 그 결과에 이르는 '선(線)이다. 가끔씩 선(線)을 생략·단축하거나 비약해서 점(點)을 얻으려는 것이 결과주의다.

사백 2시 46분 차량 한대도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기사'는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독일에서 머무르는 동안 운전하면서 내 진행신호에 어딘가 다른 차량이 진행해올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기고

나원주



전남도가 광주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2008년 10월 여수시,목포시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우리 전남 도민이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상한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겠는가?

내년 전남 전국체전 지금부터 준비하자

민들에게 자기고장에서 어떤 종목경기가 개최되는지, 자기가 관심있는 종목이 어디서 경기를 하는지, 임원,선수단 규모는 어떤지를 미리 알려 준비와 관심을 갖도록 하자.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개최가 끝나고 전남체육의 원인으로 삼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안전운전상식 숙지로 예방해야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결빙이 자주 생겨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빙판길 사고의 대부분은 '겨울철 운전상식'만 알고 지킨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넷째 정체가 길어지면 연료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넉넉히 연료를 채워두는 것이 좋다.

시설

정부, 여수엑스포 투자 최대한 앞당겨야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결의하는 범국민보고대회가 지난달 30일 여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도 하루속히 설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로 및 숙박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박람회장 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투자를 포함해 2011년까지 모두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 대체우회도로는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고 있고 소라~화양 지방도 22호선 확장공사는 실시 설계 단계다.

문제는 투자시기다. 여수엑스포 개최까지는 4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통로로 도로와 항만, 철도, 항공 등 여수 주변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대부분이 설계 중이거나 전체 공정이 극히 낮은 상태다.

여수엑스포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과 함께 주요 SOC 사업의 진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9조원에 달하는 투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 부담 큰 연금·건강보험 개혁하라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15세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사회보험료 인상이 소득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년 전에 비해 21.9% 증가했지만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액은 27.3% 늘어났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득과 고용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감이 크다는 데 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큰 부담을 갖는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재원 마련에 소홀하고 재정을 잘못 운영해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회보험료 시스템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하기 바란다.

無等鼓

우리나라 정당의 브랜드는 당의 절대적 실력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계상레다. 삼 출신 대통령이 많아서인지 정당 브랜드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어족 브랜드'다.

같은 뿌리지만 견원지간이 된 지 오래인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최근 흩어 브랜드 싸움을 벌였다. 17대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설움을 곱씹을 때마다 '홍어파티'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

홍어와 과메기



DJ의 홍어는 정치적 부침이 유달랐던 그의 행로와 함께 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됐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파티'를 열이라고 공격했다. 대통합신당 대대선에서 YS에게 패배한 김 전 대통령은 정계은퇴와 함께 영국 캄브리지에 은둔하면서도 국내에서 공수한 홍어를 즐겨 먹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

문구점 불량식품 구매, 학교의 적극적인 지도 필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살다시피 한다. 그 이유는 문구점에 각종 군것질음과 과자류를 사먹기 위해서다.

문구점에서 정식 유통 절차를 거친 안전성 있는 제품을 판다면 안심이지만 제조회사도 적혀 있지 않고 성분과 유통기한도 없는 비위생적인 물건이 팔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